

GIST 신소재공학과, '과학기술 경진대회' 20회 맞아... 전국 대학생 54개 팀 참가

- 2007년 시작해 올해 20회... 전국 이공계 대학생 54개 팀 참가, 서류심사 거친 8개 팀 본선 진출
- GIST 신소재공학과 최근 5년 연구논문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 제안·발표
- 성신여대-한국항공대 연합팀 최우수상...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열전달 제어 아이디어 제시



▲ 10월 2일(금) GIST 오룡관에서 열린 '제20회 GIST 신소재공학과 과학기술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에서 참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 줄 왼쪽부터) GIST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 이한열 교수, 이주형 학과장, 엄광섭 교수, 김현호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신소재공학과(학과장 이주형)가 주관해 지난 10월 2일(금) GIST 오룡관에서 전국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20회 GIST 신소재공학과 과학기술 경진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54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 35개 팀보다 참가 규모가 늘었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연구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대회는 대학생들이 최근 5년간 GIST 신소재공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연구 역량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본선에서는 참가팀들이 제출한 연구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심사위원단은 연구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발표력,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특별상 4팀 등 총 8개 팀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상금 100만 원)은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신소재공학과 양영서 학생과 한국항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주선우 학생이 수상했다. 두 학생은 'Twist-Angle Engineering을 통한 β -Ga₂O₃/h-BN 계면 Phonon Coupling 및 열전달 제어'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상(50만 원)은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손이삭·김세현 학생이 '유연 전극과 정밀 형상 프로그래밍을 화학적으로 결합한, 맞춤형 사전성형 3D 생체전극'을 주제로 발표해 차지했다.

장려상(각 30만 원)은 ▲경희대학교 유전생명공학과 박상훈·이예원 학생의 'Dual reporter ratio Albubody: 표적 치료 그리고 비율을 통해 실제 약물 방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항체 진단법' ▲GIST 화학과 홍윤아·김지현 학생의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광소자를 위한 친환경·고효율 MOF/COF 스마트 보호막'이 각각 선정됐다.

특별상(각 20만 원)은 ▲GIST 화학과 강준우·신소재공학과 김현수 학생 ▲전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해연·김노은 학생 ▲GIST 신소재공학과 이광열·정찬욱 학생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김승현·유금성 학생 등 4개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양영서·주선우 학생은 " β -Ga₂O₃ 소재의 열전달 한계에 주목해 새로운 열관리 방향을 고민했고, 그 과정을 좋은 결과로 이어갈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신소재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 아이디어를 탐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형 신소재공학과장은 "매년 신소재공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창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연구를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신소재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